

종교와 집단감염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

박해남(원광대학교 HK+연구교수)

인용은 반드시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며 - 신천지와 집단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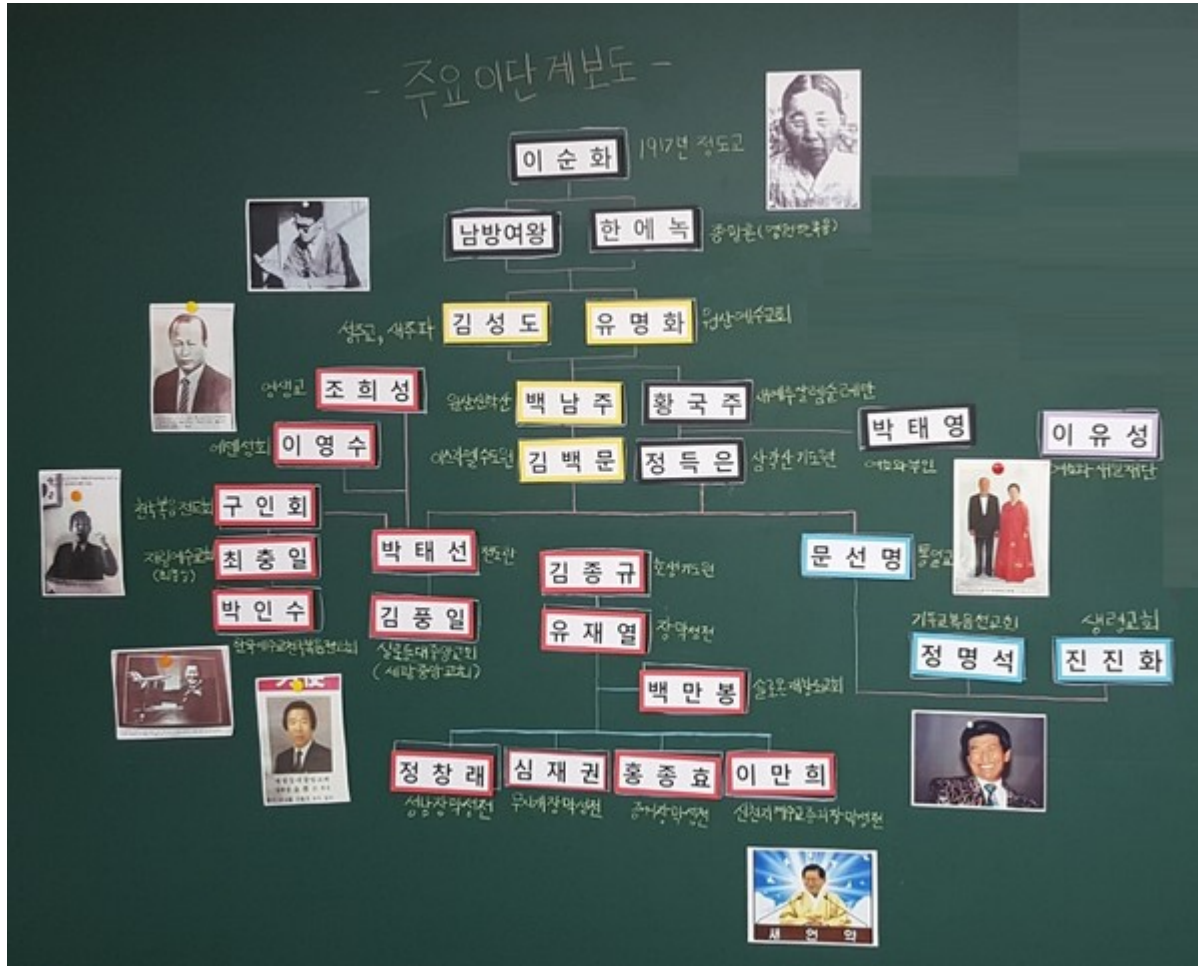
-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었다. 신천지 대구교회.
- 다른 종교단체 감염자 수가 100명 이하였던 것과 달리 5000명을 상회.
- 3월 18일 기준 신천지 관련 5,016명 (5월 5일 현재 10,806명)
- 왜 신천지 대구교회였을까?
- 신천지와 대구교회의 종교·조직적 특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발표의 목적.
- 이를 위하여 2020년 4월과 5월 초, 총 7명의 탈퇴자와 구술 인터뷰 수행.

조사 대상

구술자	연령	지역	활동기간	구술
A	20대중반	광주	5년	2020. 4. 10
B	20대중반	광주	3개월	2020. 4. 10
C	20대후반	대구	6년	2020. 4. 25
D	30대초반	서울	5년	2020. 4. 25
E	30대초반	부산	7년	2020. 4. 27
F	20대중반	부산	7년	2020. 4. 27
G	20대중반	대구	6년	2020. 5. 3

현재 신천지 내부에 있는 이들과 접촉하였으나 구술면접을 거부.

2. 신천지는 어떤 종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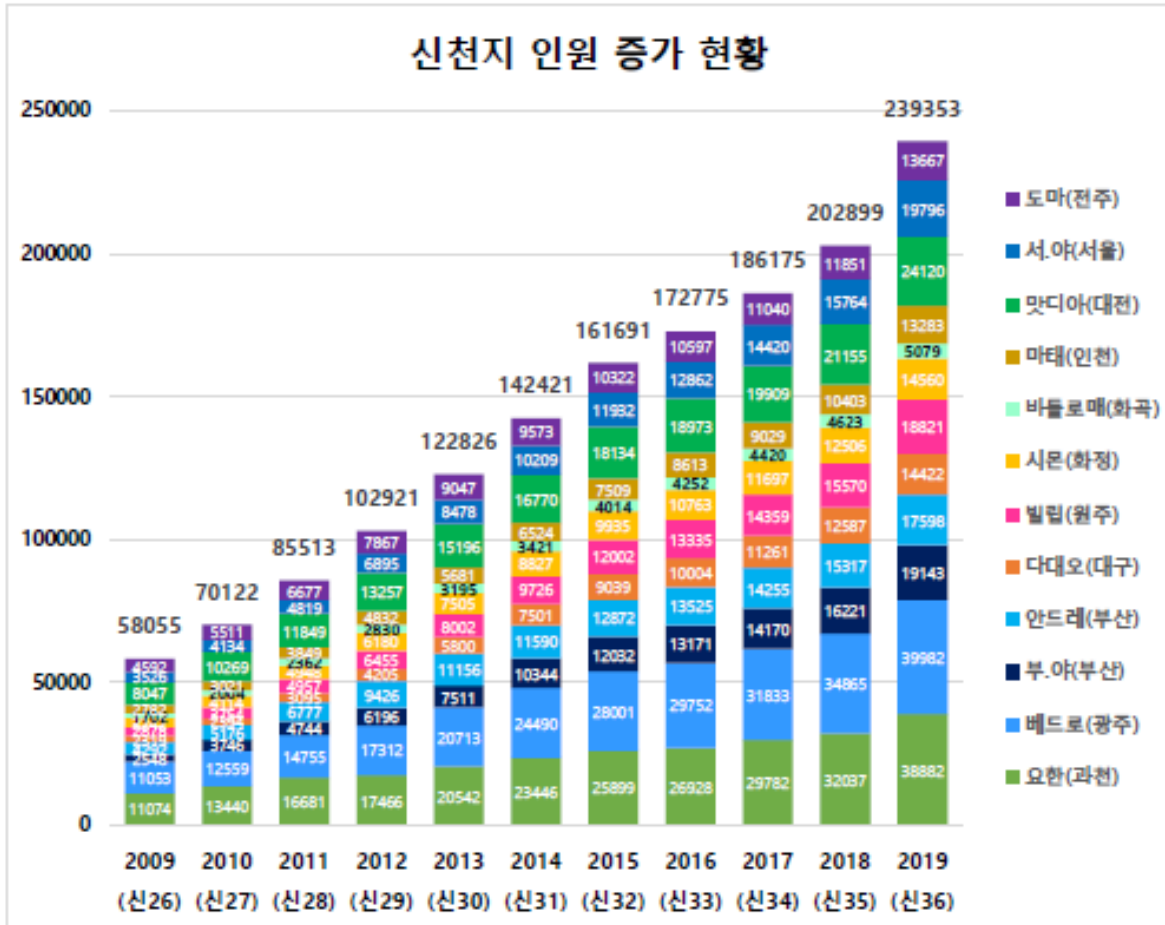


- 신천지는 시한부종말론과 결부된 한국의 신흥종교의 계보 속에 자리함.
- 종교지도자 이만희는 박태선-유재열-구인회-백만봉의 종교집단에서 신도에서 중간 간부를 차례로 거친 뒤 1984년 '신천지' 창립.
- 시한부종말론을 숫자부 종말론으로 바꿈 (144,000명)

(출처) 기독교포탈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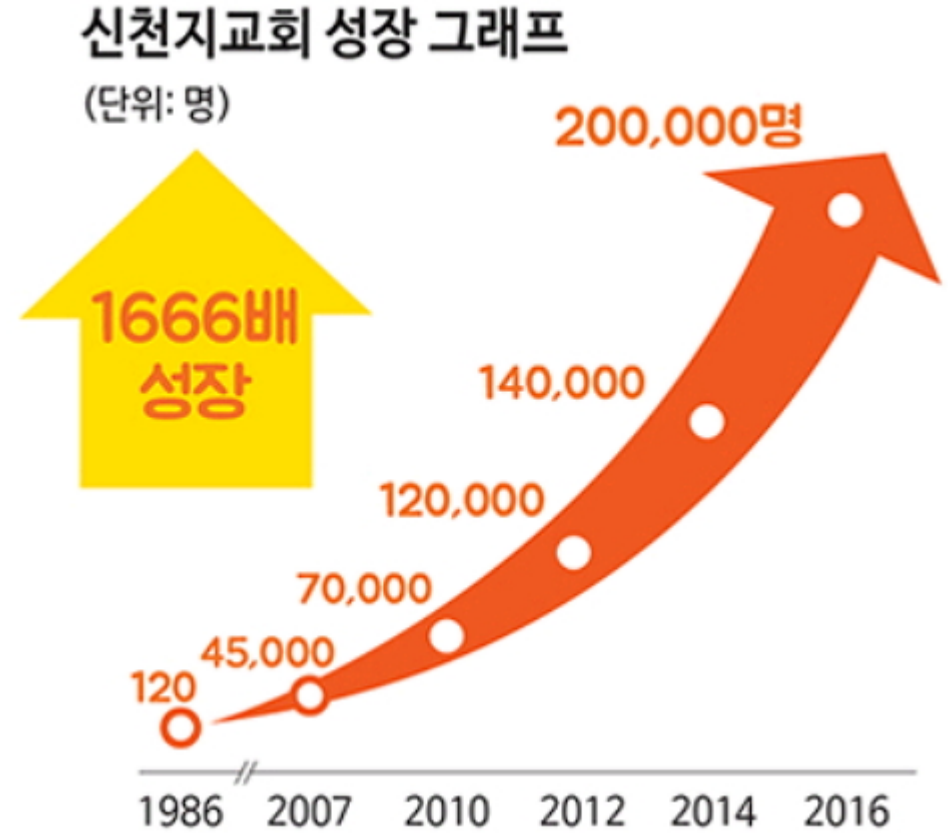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2>

2. 12지파 교인현황(2020.1.12 총회 발표, 2019.12월 기준)



(출처) 종말론사무소 보도자료

- 2000년 이후 폭발적 교인 인구가 대폭 성장
- 1990년대 학생운동의 조직 노하우가 접목되어 있다는 주장 존재



<http://www.christiantoday.us/24866>

3. 신천지 교인의 입교과정



(출처) http://qabbs.catholic.or.kr/pds/bbs_print.asp?id=164912&SORT=C&menu=4823

- 신천지 교인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 공식적으로는 입교단계에 이르러야 '교인'이 된다.
- 하지만 섭외단계에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 2010년 이후 멘토링, 심리상담, 대학 동아리, 위장 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섭외

4. 신천지 교인의 일상 1

- '센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교리 학습. 종말론과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핵심 교리.
- 섭외단계에서부터 주변에 비밀로 할 것을 요구.
- 복음방과 센터 단계에서 수강생의 상황을 통제(교인들이 함께 수강하면서 교리학습자의 성향과 질문 파악)
- 센터 단계 중반, 교리에 대한 신뢰감이 느껴질 경우 신천지임을 밝히고, 함께 수강한 이들이 교인이었음을 밝힘.
- 이 과정에서 현세적 부도덕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거짓말)이 내세적 윤리에 의하여 정당화 됨.
- 사회적 소수자들은 '섭외' 단계에서 배제되며, 주 4회 3시간 교육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은 지속 어려움.

4. 신천지 교인의 일상 2

- 입교무렵부터 신천지 교인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단절하고 '신천지'로 '넘어가게' 된다. 이유는 크게 4가지.
 1. 종말론적 엘리트주의
 2. 포교에 따른 주변인과의 관계 단절
 3.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주변과의 불화
 4. 신천지의 조직적 특성 - 무한경쟁, 최소 2년간 일상화된 과로
- A - 전도팀장, 전도데이터 담장자, 회계담당, 섭외팀장 (첫차타고 나가 막차타고 들어옴)
- C - 국제부(통번역) (2014년 918 행사 시에 하루 2시간씩 취침)
- D - 교육부장, 공연예술과장, 치어리더 교관, 찬양팀, 새신자팀장 등 (신장질병)
- E - 부구역장 및 새신자 담당. (번아웃)
- F - 국제부(영상번역)
- G - 2019년 10만 수료식 (청년들을 '갈아넣었다')

4. 종교적 구원의 '증표'로서의 집회

-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뱅교인들의 삶을 묘사 - 신자들이 구원을 확인하는 영역은 직업(vocation)
- 신천지 교인들이 구원은 종교집단 내부, 특히 종교조직의 성장과 집회를 통해 확인.
- 종교집단의 성장과 국내외적인 영향력의 확대가 신천지가 말하는 '종말서사'의 현실화
- 이에 따라 대형화된 집회시설을 만들고 집회의 극장성을 최대화.
- 집회는 밀집대형 유지. 같은 복장. 매우 큰 소리로 구령 외침.

(우)

<http://m.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6>

(우우)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99>



5. 왜 대구인가?

- 1997.12 집단탈퇴사건 이후 타 구역의 청년들이 파견되어 재건
-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 청년(19~35), 부녀(35~64, 여)중심. 종교활동 가장 활발

▶ 세부사항 (발표일자: 2019.5월 성회, 2019. 4월 기준)

지파/부서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장부청	지파/부서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요한	4,434	12,674	7,329	24,437	요한	18.14%	51.86%	29.99%
베드로	5,390	13,291	12,041	30,722	베드로	17.54%	43.26%	39.19%
부산야고보	1,526	3,975	3,868	9,369	부산야고보	16.29%	42.43%	41.29%
안드레	2,103	5,555	5,702	13,360	안드레	15.74%	41.58%	42.68%
다대오	1,277	4,262	5,572	11,111	다대오	11.49%	38.36%	50.15%
빌립	1,386	7,034	3,975	12,395	빌립	11.18%	56.75%	32.07%
시몬	1,360	4,203	5,205	10,768	시몬	12.63%	39.03%	48.34%
바돌로매	724	2,117	1,020	3,861	바돌로매	18.75%	54.83%	26.42%
마태	1,234	4,320	2,172	7,726	마태	15.97%	55.92%	28.11%
맛디아	2,941	9,543	6,713	19,197	맛디아	15.32%	49.71%	34.97%
서울야고보	1,268	3,699	2,447	7,414	서울야고보	17.10%	49.89%	33.01%
도마	1,803	4,562	2,722	9,087	도마	19.84%	50.20%	29.95%
전체	25,446	75,235	58,766	159,447	전체 평균	15.96%	47.18%	36.86%

- G(2020년 3월 탈퇴)의 증언
- 교육생이나 복음방에서는 감염자가 적었다고 함.
- 31번과 중국의 연결고리는 약하다고 추정. 우한은 부산 담당 구역.
-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준비하여 11월 10만 수료식.
- 2020년에도 다시 10만 수료식 준비.
- 2015년 메르스 당시 자체적으로 집회 중지로, 감염자 최소화. 이를 종교 집단의 카리스마와 연결 시킴.
- 2020년 보건복지부 영상 상영이나 손소독 정도. 하지만 종교활동은 2월 18일 아침까지 정상적으로 진행

6. 요약

1. 일상화된 과로와 빈번한 접촉
2. 종교적 구원을 표시하는 집회
3. 대구교회의 연령적 특성 - 과로.
4. 종교적 카리스마에 대한 신뢰

감사합니다.